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실천과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서 론

-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초기와 달리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정책내용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아래 행정자치부는 07년 2월 47개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 발표한 바 있으며, 건교부, 농림부, 문광부 등도 다양한 형태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전략의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아직도 생소함을 느끼고 있으며, 정책의 배경은 물론이고, 정책의 개념 및 내용, 특성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은 형편임
- 특히 종래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해 왔던 시책이나 사업의 상당수 내용이 결국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이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종전의 사업과 뭐가 다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음
- 이에 더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체계나 내용, 특성을 이해하기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특성 및 개선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실천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함

II.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략

1. 추진배경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에는 국가를 초월한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가를 초월한 요인으로서는 경제의 지구적 통합인 세계화에 따라 영토내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조절능력이 '공동화'(hollowing out) 내지 약화됨에 따라 (Jessop, 2000, Ohmae, 1997),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의 자기책임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임
 -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의 역할이 증대됨을 일러, “지역국가,” “다투는 지역의 폭발,” “세계화에 따른 지역화의 역설,” “신중세” 등으로 달리 부르기도 함
- 그런 형편에서 현재는 양질의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이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들이 삶의 질이 향상된 지역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 이 이면에는 현대 경제의 성장동력과 삶의 질이 높은 지역과의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이 지식 노동자가 종사하는 고차산업을 끌어들이기 뿐 아니라, 골드칼라 등의 주거입지 요소가 되기 때문
 - 특히 문화, 어메니티 등 양호한 삶의 질 요소를 지닌 지역은 지식 노동자의 휴식과 여가 등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의 창의성 및 아이디어 등 창조적 생산활동에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음
- 결국 거시적으로는 세계화 경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지역 경쟁력의 요체가 지역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삶의 질 요소로 바뀌고 있기 때문임
- 국내적으로는 지난 시절의 우리사회의 발전궤적에서 변화가 요청되기 때문이며, 그것은 지난 30여년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등한시 했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임
 - 압축성장은 개발연대와 다름 아니었으며, 조합주의적 국가(corporate state)가 주도하는 양적 성장과정에서 삶의 질은 부차적인 관심사였음
 - 그러나 보니 우리나라는 도시나 농촌, 발전지역이나 낙후지역 모두 삶의 질이 열악한 수준에 머무릴 수밖에 없었음
- 이는 다양한 통계들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 만족도는 OECD 국가 평균(70.6%)¹⁾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47.3%)을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 가운데 터키, 헝가리 등을 제외하고 거의 꼴찌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국제평가기관인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MHRC)이 매년 평가하는 세계 각국 도시의 생활의 질 평가에서도 서울조차도 세계 215개 도시 가운데 고작 89위를 차지하고 있음(2006년)²⁾

1) 주관적 삶의 만족도 측정치에서 7-10까지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1999-2002년 동안의 수치임)

2) MHRC 평가는 주택, 의료보건, 교육, 교통 등 10개 부문 39개의 지표로 생활의 질을 측정하고 있음

<표 1> OECD 국가의 삶의 질 만족도

국 가	만족응답자	국 가	만족응답자
Australia	77.2	Luxembourg	82.0
Austria	82.7	Mexico	79.5
Belgium	78.5	Netherlands	89.6
Canada	80.8	New Zealand	..
Czech Rep.	66.7	Norway	78.8
Denmark	85.5	Poland	50.5
Finland	84.3	Portugal	62.4
France	65.8	Slovak Rep.	46.7
Germany	78.6	Spain	65.3
Greece	60.8	Sweden	79.6
Hungary	37.1	Switzerland	84.9
Iceland	87.0	Turkey	38.6
Ireland	85.4	United Kingdom	73.2
Italy	69.6	United States	78.7
Japan	53.1		
Korea	47.3	평 균	70.6

자료 : <http://www.oecd.org/>

- 그러나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심화시키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행복은 물론이고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양적인 개발이 많은 불경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시각도 개발지향에서 환경, 문화, 어메니티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우리의 열악한 삶의 질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또 지방자치가 심화됨에 따라 주민의식이 신장되면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주목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³⁾
 - 즉, 과거의 수동적이고 행정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김선기, 2006)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의 추진은 민선4기 지방자치제 실시와 시기적 상합성도 부인할 수 없음. 민선 4기 지방자치제 출범에 따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일하는 단체장, 능력 있는 단체장을 홍보하고픈 의지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음

<표 2> OECD 국가의 삶의 질 만족도

구 분	내 용
국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에 의한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의 역할 증가 - 경제의 지식기반화, 소프트화에 따라 삶의 질이 경쟁력이 요소가 됨
국내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성장에 따라 부차적인 삶의 질 열악 - 지역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점: 질적 균형발전 - 지방자치제 신장에 따라 지역에 대한 주민 관심 증가

2. 정책의의 및 내용

1) 정책의의

- 외국의 지역만들기는 대체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도시문제에 대처하려는 유인이 발단이 되었음
 - 영국의 전원도시(Garden City) 구상이나 미국의 도시미화운동(The City Beautification Movement)이 그렇고 일본의 마찌즈꾸리의 경우도 도시화의 성숙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지는 도시문제에 대응하려는 동기가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많음(아키라, 2005)
- 우리는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 도시문제에 눈돌릴 겨를도 없는 처지에서 개발연대를 지내왔음
- 역사적 과정이야 어떻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살기좋은 지역이 무엇인가라는 정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된 의견은 없지만 공통점은 발견되고 있음
 - 유럽의 경우⁴⁾,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전략과 주거,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양질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⁵⁾,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소득창출에 더해 환경적 요소까지를 고려하는 것까지 다양함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EU 차원의 Objective 1, 2, 3 등의 전략에서부터 양질의 생활환경조성에 초점을 둔 개별국가의 전략까지 다양함. 전자의 경우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에 무게가 있음

5) 일본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소득창출에 초점을 둔 ‘지역 일으키기’에서 소득창출을 포함한 생활환경 개선 등 미시, 거시적 차원의 전략까지 다양함

- 미국의 경우, livable city, 스마트 성장 등의 논의에서 보듯이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함
- 결국 살기좋은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들의 복합적 요소로 구성되며, 그것은 결국 거주, 근로, 여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 즉, 살기좋은 지역은 ‘거주의 장소(living place), 근로의 장소(working place), 여가의 장소(recreation place)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음
- ※ 1751년에 저술된 이중환의 「택리지」는 살기좋은 지역의 요건으로 ‘풍수, 땅의 기운, 안전, 경제적 잠재력’을 들고 있음
- 이들은 다시 일자리가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문화,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여가, 주거 등 보다 나은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음
- 전략적으로는 이같은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계를 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1단계는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며, 그 다음은 환경, 미관, 복지 등 생활환경을 공급하고 양질화시켜 ‘보다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이나 의식을 고양시키는 단계임
 - 오야마의 제1, 2, 3차에 걸쳐 일어난 NPC 운동이 그런 경우의 대표적 보기라 할 수 있음
- ※ 물론 담장 허물기 사업, 나무 한그루 심기 등 단일한 테마를 중심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진 지역을 총체적으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한 부분적 혹은 교정적 차원의 사업으로 간주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어쨌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종합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공동체 건설에서 의의를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지붕과 담장의 페인트 칠 등 외형적 치장에서 찾는다면 지역사회와 주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음(김선기, 2007)
- 따라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외적 환경을 가꾸는 ‘지역가꾸기’ 이상으로 일자리, 사람, 의식, 문화, 공동체 등을 총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개발(communitiy development)의 과정으로 이해되어 함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유형은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살 수 있는 지역만들기’에서부터 양질의 생활환경을 갖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까지 다양함
- 사업의 성격을 단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지만 대체로 도시사례는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반면, 농촌사례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득과 고용증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특징이 있음

- 어쨌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지역사회개발로 이해할 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첫째, 지역의 총체적 삶의 질, 즉, 부가가치, 주거, 여가, 교육,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합성, 패키지성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간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연계적 지원이 필요함
- 둘째, 지역 특히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주도·주민주도’의 원칙 아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성경룡, 2006)
 - 지역의 자율기획과 자기책임에 따라 시책이 추진되지 않고, 관주도의 주민동원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의 의존성만 키우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
- ※ 일본 오야마 정 야하다 하루미(矢幡治美) 정장은 “행정에 의한 지역 만들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으며, 오히려 행정에서 등을 돌림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지역의 자율을 강조하고 있음(한국정보문화센터, 1944: 44)
- 우리의 경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특히 지방주도, 주민주도의 자생적 지방의 자생적 지역만들기 사례들은 전국적 운동 차원으로 보기에 아직 경험이 일천하고 사례의 수도 많지 않음
- 그나마 일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중반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음

<표 3> 자생적 지역만들기 사례

지 역	마을만들기의 내용	관련주체
서울 중구	북촌 한옥 가꾸기	(사)종로북촌가꾸기회
서울 종로구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	주민, 도시연대, 종로구
서울 양지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마당 조성	주민, 전문가, 구청
대구 삼덕동	골목가꾸기, 담장허물기, 녹색가게	대구YMCA, 주민
부산 금정 금샘마을	단오잔치,금샘마을 문학의 밤, 민속춤 교실, 자원봉사센터,사랑방문화클럽	주민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광주시 북구
서울 송파 올림픽 선수촌A	비어있는 상가에 에어로빅,가요교실 등 운영	구청 : 설치, 부녀회 : 위탁관리
경기 안양시	참여와 자치를 위한 동네 한바퀴 생활의견 함 운동	안양YMCA
경기 고양 일산 백마마을 삼성A	뜨락축제 개최, 재활용품 교환,삼성문고 운영, 꽃길 가꾸기	부녀회
서울 양천구	백제문화관 건립 운동	열린사회시민회의
서울 강북 극동A	녹색 아파트 교실, 알뜰수선 수리센터 운영	녹색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 은평구 녹번동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교통안전 지도 만들기, 신문제작	도시연대, 주민
인천 부평시장	시장의 가로 시설물 정비, 분수대 설치	구청, 상가번영회
경기 시흥 목읍자리마을	철거주민의 집단이주,주민자체 시공건설	자선단체, 주민
강원 토고미 마을	친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	강원도, 토고미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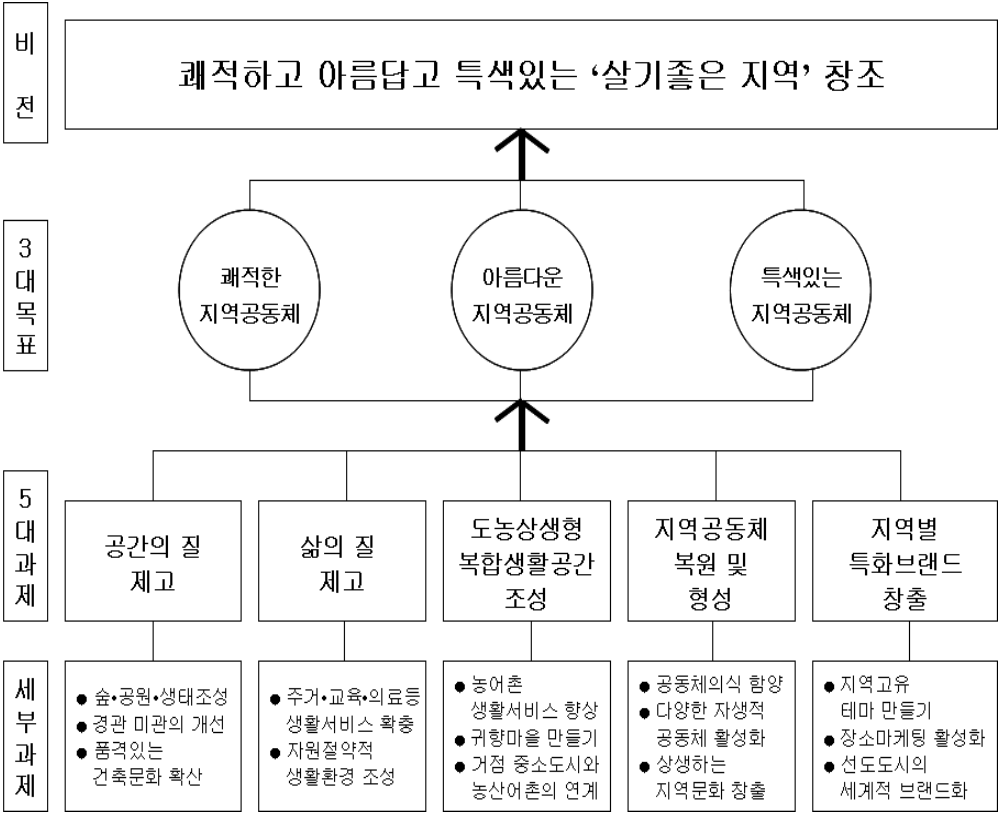
출처 : 이명규, 2004

2) 정책내용

- 결국 지역만들기는 지역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켜 매력있는 지역으로 변환시키자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존 지역개발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주도, 주민주도의 정책이라는 점이며, 그런 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도 지역의 자율과 기획에 의한 자기책임을 중시하고 있음
- 정부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목표를 “쾌적한 지역공동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로 구체화하고 있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고품격 생활공간,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 도농

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그림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내용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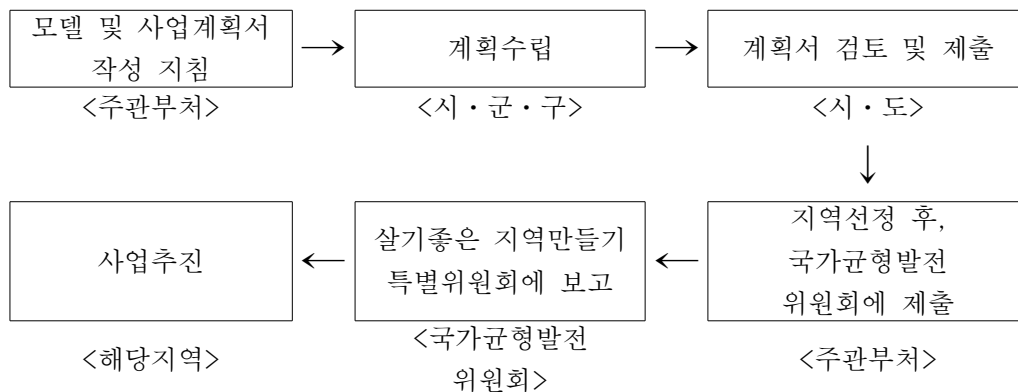
- 이같은 구상 아래, 사업의 추진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총괄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
- 행정자치부는 건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등에 추진하는 주관부처별 중앙기획 공모전과 병행하여 '9개+알파'유형의 모델을 개발,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우수계획을 선정, 사업을 추진

<표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행자부)

모 델	특성	특화형 예시
산업형	생산활동 활성화 및 지원이 테마	- 향토산업형, 첨단산업형
교육형	교육활동이 발전의 주요 테마	- 국제화형, 한국전통형
정보형	지역의 풍부한 정보인프라 활용	- 정보화마을형, U-city형
생태형	양질의 환경, 생태가 주요 테마	- 수변경관형, 도보자전거형
전통형	전통, 역사유물, 유적이 테마	- 고도형, 설화민담형
문화형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발전	- 예술인촌형, 축제형
관광형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 자연관광형, 예술관광형
건강형	스포츠시설 등을 통한 심신 단련	- 스포츠형, 휴양형
가족형	New Urbanism, 가족공동체 테마	- 3세대형, 유아여성편의형

- 선정된 우수계획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 예산을 지원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
- 우수계획 선정은 합당한 모델의 선택 및 사업기획,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및 의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그림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절차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의 역할분담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 중앙정부는 지역의 사업추진을 제도적 ·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부처간 정책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기획·추진하면서 지역 사회활동을 지원

- 지역사회는 지역생활의 개선사항을 공론·토론하여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권고

III. 추진실태 및 개선점

1) 추진실태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현재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했거나,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실태전모를 분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부처별 사업실태, 지역의 사업계획⁶⁾ 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측면에 한정해서 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할 것임

□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모부처가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음
- 특히, 균형위의 조정 하에 중앙부처들이 사업의 기획·관리·지원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올해부터 실시할 시범사업이나 그 전에 기(既)추진된 사업의 경우도 여러 부처가 주관을 달리하여 추진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총괄, 지원하면서, 건교부(살기좋은 도시), 농림부(살기좋은 농촌), 문광부(가고싶은 섬), 행자부(지자체 우수계획) 등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음

6) 지역의 사업계획은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해 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시범사업에 한정해서 살펴볼 것임

<표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공모사업

주관부처	주요내용	비고
행자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47개 지역)	07. 2월 선정
농림부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시범사업(전원마을 55개소)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0개 권역)	06. 10월 선정 선정예정
건교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시범도시5, 시범마을 16-32개)	선정예정
해수부	휴양바다마을(2개소)	06. 5월 선정
문광부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3개소 제외)	선정예정
산자부	산업단지 환경정비 시범사업(1개)	선정예정

- 사업의 공간적 대상은 구분의 명확한 기준⁷⁾이 없이 부처별로 분담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군 지역 또는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건교부는 도시지역(시, 구) 또는 도농복합시의 동 (또는 그 이하 마을단위), 농림부는 마을, 법정리 등을 대상으로 함

<표 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대상지역 구분

구 분	대상지역			
	시	군	도·농복합시	
			읍·면	동
행자부		○	○	
건교부	○			○
농림부	마을			
문광부	기초자치단체의 섬			

□ 사업내용

-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부처별로 시행하는 사업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가령, 행정자치부의 9개 모델에 의한 사업내용과 건교부의 10개 모델, 농림부의 사업내용 등이 그러함

7) 도시 및 농촌 지역 등 사업추진 대상지역의 선발성이 사업공간구분의 기분이 된 듯한 인상이 많음

※ 행자부 :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 기타 혼합형

※ 건교부 : 생태·환경형, 경관·미관형, 건축문화형, 역사문화형, 정보·과학형, 녹색교통형, 관광·레저형, 방재·안전형, 교육·학습형, 도시정비형

※ 농림부 : 전원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다만, 사업내용의 근간이 되는 모델에 있어서는 행자부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제반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데 비해, 건교부는 경관, 건축, 도시정비 등 비교적 제한적, 물리적인 것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부처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경우 모델별로 전문성이 있는 부처를 주관부처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패키지방안 완성시 균형위, 행자부 · 주관부처 · 협력부처간 협력서 체결 예정

○ 더하여 타 부처의 사업에 견주어 정책지원 및 사업추진의 패키지를 보다 강조하는 특징이 있음

□ 지역선정

○ 선정한 사업대상 지역은 부처별로 상이하만 선정한 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는 마을 등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 2007년 2월 시범사업지역을 선정 · 공표한 행정자치부의 경우, 47개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지정지역과 도지정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⁸⁾

8) 총 126지역 시범사업에 신청을 하였음

<그림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선정지역



- 선정지역 47개 지역 가운데 국가지정이 30개 지역, 도 지정이 17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음
- 내용에 있어서는 생태형이 가장 많고(25.5%인 12개 지역), 그 다음은 문화형 (21.3%인 10개 지역), 산업형(17.0%인 8개 지역)의 순위를 보이고 있음

<표 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대상지역

구분	생태형	문화형	관광형	산업형	가족형	교육형	전통형	건강형	기타형*	계
국가 지정	9	6	5	2	3	1	2	1	1	30
도 지정	3	4	2	6	0	1	0	1	0	17
계 (%)	12 (25.5)	10 (21.3)	7 (14.9)	8 (17.0)	3 (6.4)	2 (4.3)	2 (4.3)	2 (4.3)	1 (2.1)	47 (100.0)

* 기타형은 평화형 지역임

-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27.7%), 그 다음은 경북 8개 지

역(17.0%), 전북 7개 지역(14.9%) 등으로 나타내고 있음

<표 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대상지역

구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가 지정	1	2	3	2	2	3	7	6	3	1	30
도 지정	0	0	3	0	2	4	6	2	0	0	17
계 (%)	1 (2.1)	2 (4.3)	6 (12.8)	2 (4.3)	4 (8.5)	7 (14.9)	13 (27.7)	8 (17.0)	3 (6.4)	1 (2.1)	47 (100.0)

-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07년 2월 현재 141개의 지역이 신청해 놓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지역(시범마을 32개, 시범도시 5개 범위)을 확정할 예정임
- 시범마을은 서울 5, 부산 4 등 52개의 지역에서 신청하고 있으며, 시범도시의 경우 81개 지역이 신청해 놓고 있음
- 시범도시는 경기 15개 지역, 서울 11개 지역, 전남 10개 지역, 인천과 경남이 각각 8개 지역이 신청하고 있음

<표 9> 시범도시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11	5	2	8	3	7	2	15	3	3	4	4	10	4	8	-	89

- 사업유형에 있어서는 도시정비형이 21개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생태·환경형 14개 지역, 경관·미관형 12개 지역 등을 차지하고 있음

<표 10> 시범도시 유형별 현황

구분	생태·환경형	경관·미관형	건축 문화형	역사 문화형	정보·과학형	녹색 교통형	관광·레저형	방재·안전형	교육·학습형	도시정비형	계
계	14	12	3	9	3	2	10	4	11	21	89

- 농림부는 전원마을과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사업 모두 이미 사업대상지구가 선정된 지역이 많고, 또 향후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임
- 전원마을사업은 마을단위의 지역에 대해 현재 55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으며, '07년 15여개의 추가지역을 지정할 예정임
- 지역적으로는 경남이 가장 많은 16개 지역, 그 다음은 전남 11개 지역, 강원 8개 지역이 순을 보이고 있음

<표 11> 전원마을 현황

도명	지구명	위 치		도명	지구명	위 치		
		시군	읍면			시군	읍면	
강 원	후리사	원주	관부		신광	나주	다시	
	산북	강릉	성산		유천	담양	창평	
	도천	영월	주천		비봉	보성	득량	
	한계	인제	북		금덕	함평	해보	
	연곡	강릉	연곡		서면	순천	서면	
	둔내	횡성	둔내		목백	광양	옥곡	
	정자	인제	남		대성	담양	금성	
	송암	춘천	사북		용수	담양	창평	
충 북	양성	충주	양성	경 북 경 남	벽진	성주	벽진	
	송학	제천	송학		양천	의령	칠곡	
	애련	제천	백운		갈전	진주	금산	
충 남	등고	서천	판교		양촌	통영	용남	
	장산	천안	수신		대곡	사천	정동	
	대동	예산	덕산		생림	김해	생림	
	지정	홍성	장곡		초동	밀양	초동	
	작천	청양	대치		모곡	함안	산인	
	봉곡	공주	반포		내산	고성	동해	
	한천	공주	우성		석대	산청	단성	
	옥산	군산	옥산		용소	남해	이동	
전 북	이성	완주	구이		여차	김해	상동	
	덕천	완주	구이		공모	의령	화정	
	운산	부안	변산		백곡	의령	정곡	
	하동	김제	하		향촌	남해	남면	
	금과	순창	금과		장기	고성	동해	
	학선	진안	동향		보산	함양	지곡	
	전 남	수북	담양	수북	제 주	저지	북제주	한경
		마륵	순천	상사		성읍	남제주	표선
만봉		나주	봉황					
계				55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마을을 포함한 법정리 중심으로 96개의 권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07년 40개를 추가해 136개를 지정, 추진할 예정임

- 지역적으로는 전남이 가장 많은 17.7%, 그 다음은 경북 16.7%, 경남 13.5%의 순위를 보이고 있음

<표 12>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지역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권역수	1	8	10	8	10	11	17	16	13	2	96
비율 (%)	0.010	0.083	0.104	0.083	0.104	0.115	0.177	0.167	0.135	0.021	1.000

□ 지원계획

-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별로 지원내역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의 경우, 재원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 관련예산을 하나로 묶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며,⁹⁾ 행자부 평균 인센티브 20억원¹⁰⁾, 지자체 자체부담 등을 투입할 예정임
 - 아울러 3년간 도가 6억원 내외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고, 금년말에 행자부가 성과를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선정지역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살기좋은 특구’로 지정할 예정임
- 건교부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경우, 도농 복합시의 동 (또는 그 이하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마을과 시·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도시에 대해 지원을 달리하고 있음
 -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30억원까지 재원을 지원할 계획임
-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¹¹⁾에 대해서는 3-5년간 70여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원마을¹²⁾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의 경우 지구당 3년간 10-20억원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임

9) 중앙부처의 정책 패키지는 2월 중에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와함께, 도(道)가 주관하여 군특회계, 일반회계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게 될 것임

10) '07년 5억원, '08년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차등해서 지급하되 평균 10억원, '09년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 5억원을 지급할 예정임

1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업을 농림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12) 현재 55개의 전원마을이 지정되어 있음

2) 성과 및 개선점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사업 시행초기이다 보니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추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나, 그간의 양적 지역개발에서 질적 지역개발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무엇보다 기존의 지역발전전략과 달리 지역주도, 주민주도의 지역발전전략, 지역사회개발적 지역개발전략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진실태에서 나타난 개선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형식적인 추진체계와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복잡한 구도를 띠는 채,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처간에 공간을 기준으로 사업을 분할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만들기 테마선정은 물론이고, 계획, 공모 등에 적잖은 혼란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었음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중앙- 관 주도’에서 ‘지역-민 주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책시행의 초기인 탓에 중앙정부 위주, 행정위주로 정책이 수립되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경향이 농후함
 - 이는 상당부분 공모제를 채택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발하는 시스템에 기인한 탓으로 보임
- 기존에 추진하던 마을 및 지역단위 지역개발 사업과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내용 및 성격 측면에서는 유사, 중복성도 있음
 - 현재 다양한 부처나 상당수 지역에서 다수의 지역개발사업 들을 시행,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관광형 모델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문화 및 관광형 모델과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정보화마을 사업과 정보형 모델 등 상당수 사업이 유사, 중복되고 있음

〈표 13〉 기존사업과의 유사 및 중복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존 지역개발	비고
- 관광형 지역만들기	- 녹색농촌체험 마을만들기 - 농촌전통테마 마을만들기	- 관광이 초점
- 문화형 지역만들기	- 농촌전통테마 마을만들기	- 문화가 초점
- 정보형 지역만들기	- 정보화 마을사업	- 정보화가 초점
- 전통형 지역만들기	- 농촌전통테마 마을만들기	- 전통이 초점

- 자치단체의 계획수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고양되어 있으나, 시설위주, 단지조성 측면의 물적 환경조성이 계획내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의식함양 등의 소프트 웨어적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만들기 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이며, 행정주도적인 계획수립을 추진한 지역의 경우가 여전히 많음
 - 이같은 이면에는 계획의 단기성으로 인한 합의형성 시간의 부족, 참여채널의 부족 등이 요인이 되기도 하였음
- 농촌이나 낙후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주도할 공동체 자체가 와해 또는 약화됨으로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주도할 기반자체가 약함

IV. 향후 실천과제

1) 사업지원의 포괄성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특정분야의 시설설치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거주, 근로, 여가 등 삶의 필수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터, 공동체, 사람, 의식 만들기가 복합된 종합적 성격을 띤 사업임
-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지역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가 요구될 뿐 아니

라, 이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도 관련된 주체의 협력적,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 그러나 앞서서 보았듯이 현재는 부처별로 사업공간을 분할하여 경쟁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지역의 공간적 위계에 따라 사업부처가 뒤늦게 변경됨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모신청 주관부처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지역분할 및 경쟁방식’의 사업추진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을 각자 자기 부처 고유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만들기에서 요청되는 관련 부처별 정책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추진 및 지원의 포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만들기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만들기 사업이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역)의 사업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인식이 중요함
- 통합적 관리체계는 균형위가 총괄하는 방안, 지역만들기 정책의 총괄 관리·지원 부서인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공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임
- 이 체계의 장점은 현재의 분할적, 경쟁적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협력을 강화하고, 패키지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임

2) 사업추진의 지역 및 주민 주도성 강화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의 사정에 가장 정통한 ‘지역-민 주도’로 시행되어야 함이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임
- 그러나 정책을 조기에 세팅하고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형성 차원에서 관의 정책주도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지역만들기가 주민주도라기 보다는 행정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측면이 많음
- 이는 공모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사업추진방식에 기인하고 있는 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공모제 방식을 취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모전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경쟁이 이루어 지고 그러다 보니 행정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양상이 벌어짐
 - 특히 주민주도를 강조하지 않는 기존의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보다는 행정 일선 공무원이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단위까지 사업이 착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초기에는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공모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이같은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상시(常時)적 추진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상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듯이 예산 신청시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때 필요한 재원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다른 차원의 별도의 계정 혹은 교부금(가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교부금’)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살기좋은 지역계정(가칭)을 신설하거나 지방 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교부금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예산지원은 시·도별로 실령을 정해, 광역자치단체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또, 예산지원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다면 적정 규모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재원을 포괄적으로 마련한 다음, 일부는 교부세로 지역의 상시적 사업을 지원하고, 일부는 사업총괄 부처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해 신규지역 및 모범적인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시시스템과 공모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음
- 이같은 방식을 통해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고 사업을 보다 주민주도로 추진할 수 있음
- 아울러 주민주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가령, 부녀회, 청년회, 입주자대표회 등)의 지역만들기 자생조직을 구성하고, 이들간의 협력을 활성화함이 필요함¹³⁾
 - 아울러 전문가, 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협의체를 행정, 재정,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도 필요
- 여기에 더해 지역만들기가 지역사회개발 측면의 지속성을 지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개혁과 동기유발을 위한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용도 필요함

3) 사업내용의 주민합의성 강화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만들기 계획의 상당부분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담을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을 배치, 설치하는 것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많음¹⁴⁾

13) 지역만들기가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자생적 조직이 구성되어 주민주도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물적 시설의 공급이나 개선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살기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등의 소프트 웨어의 공급도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통해 사업내용을 추출해내는 ‘참여적 계획’(cooperative planning)의 활성화가 필요함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종합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은 참여의 자발성을 추출하고 지역만들기에 대한 애착을 향상시켜 사업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종합성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사업추진 내용의 개발 및 구체화에 대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한정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시행함으로써 동기유발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4) 지역만들기 사업과 기존 유사사업의 통합 및 연계추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마을, 리 등 공간적 레벨에서나 사업내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개발사업들과 유사, 중복성이 많음
- 가령, 마을단위로 시행, 추진되고 있는 관광활성화 관련 사업들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됨
 - 관광형 모델 vs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 마을이라는 사업공간, 관광이라는 사업내용 측면에서 유사 및 중복
 - 전통형 모델 vs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 마을이라는 사업공간, 관광이라는 사업내용 측면에서 유사 및 중복
 - 정보형 모델 vs 정보화 마을사업 : 마을이라는 사업공간, 관광이라는 사업내용 측면에서 유사 및 중복
 - 그 외 건교부 추진 역사·문화, 관광·레저형 등에서 농림부, 농진청, 해수부 추진 관광형 마을단위 사업과 공간, 내용측면에서 유사 및 중복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적 레벨이나 사업내용 측면에서 유사 및 중복이 있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재원의 통합, 공간의 통합, 주체의 연계 및 통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혼란 및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임

14) 물론 이 이면에는 가고자 하는 미래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감도 제출을 적시한 탓도 있지만 물리적인 것 외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한 노력의 부족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음

5) 지역공간구조 재편과 연계한 사업의 시행

-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해 상당수 농촌지역 마을은 공동체 자체의 존립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래서 정작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주도할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고, 나아가 이들 지역의 주민이 사라지게 될 것임
- 이같은 점을 고려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하게 향후의 정주공간구조 개편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지역재편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이 발전의 섬으로 고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편되는 공간구조의 거점이 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특히, 사업추진의 지역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이 처한 공간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파악한 다음, 이와 연계된 지역에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임
 -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성 등도 감안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지역 공동체 지속과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및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사업내용의 개발과 시행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6) 법제지원

- 부처간 할거주의가 상당하고, 지역의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조기에 사업을 정착,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법제화 방향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유사한 지역개발의 개별지원법이 다수 난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자의 경우가 보다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여기서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평가 및 사후관리, 부처별 정책 패키지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차원도 지역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의 정비가 뒤따라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조직의 정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선기(2006),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전략: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선4기출범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 학술세미나, 한국지방행정연구회·서울신문공동주최.
- 김현수 외(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도시부터 마을까지”, 「국토도시정보」 2006년 7월호, 국토도시계획학회
- 김현호·한표환(2005),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69권
- 김형국(2002), 「고장의 문화관측」, 서울 : 학교재
- 김형국(1996),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 박영사
- 김찬호(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참여”, 「도시행정학보」, 제13권 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 다무라 아키라(2005), 「마을만들기의 발상」, 강혜정(옮김), 한림신서 일본학총서 81, 서울 : 도서출판 소화
- 성경룡(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의 책, pp. 12-39
- 송미령(2006),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의 책, pp. 336-359
- 이명규(2004), 「도시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최막중(2006),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과 개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세미나」,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07년도 공모사업 추진 공동지침.”
- 행정자치부(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치단체 우수계획 선정 설명회 자료」
- Clark, T. N. et.al.(2002), Amenities Drive Urban Growth, *Journal of Urban Affairs*, Vol.24, No.5, pp.493-515.
- Jessop, B(2000), "The State and the Contradictions of the Knowledge-Driven Economy," J. R. Bryson, P.W. Daniels, N. D. Henry and J. Pollard(eds.), *Knowledge, Space, Economy*, London: Routledge.
- Ohmae, K.(1997), *The End of the Nation-State: The Rise of Regional Economics: How New Engines of Prosperity are Reshaping Local Markets*, London: Harper Collins.

※ 참고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

시·도	시·군	마 울	주 모델
부 산	기장군	예술과 소득의 농촌체험마을	문화형
경 기	안성시	안성마춤 Community Art Town	문화형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	관광형
강 원	영월군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 마을	가족형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기타형
	화천군	생태형 지역만들기	생태형
충 북	보은군	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	생태형
	단양군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빌리지	교육형
충 남	논산시	햇빛촌 바람산 마을	가족형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생태형
전 북	남원시	춘향이 열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건강형
	완주군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	문화형
	부안군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마을	생태형
전 남	곡성군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형
	장흥군	인간·자연 공존 우산 Slow World	가족형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문화형
	무안군	하늘 백련마을 조성	산업형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생태형
	완도군	살기좋은 울모래 마을	관광형
	진도군	시서화의 고향 운림예술촌	전통형
경 북	포항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생태형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	산업형
	군위군	행복 한밤마을	생태형
	의성군	산수유 마을 꽃길 20리	생태형
	영덕군	축산아트 프로방스	관광형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 마을	문화형
경 남	밀양시	공연예술 메카 밀양만들기	문화형
	남해군	보물섬 남해 참좋은 물건만들기	관광형
	함양군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	전통형
제 주	제주시	자연과 문화예술의 에코빌리지	생태형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지역

시·도	시·군	마 을	주 모델
강 원	강릉시	살기좋은 해살이 마을	관광형
	횡성군	수해를 넘어 태어나는 마을	문화형
	양양군	누구나 가고픈 송천 자송마을	문화형
충 남	서천군	도시와 농촌의 갈숲마을	산업형
	예산군	한국 의좋은 마을	문화형
전 북	진안군	안천 에듀-휴파크 마을	교육형
	장수군	장수무병마을 양약가꾸기	건강형
	임실군	한국의 스위스 아펜젤 치즈마을	산업형
	고창군	홍덕 복분자 타운	산업형
전 남	광양시	웰빙 리버사이드 빌리지	생태형
	담양군	역사의 혼이 숨쉬는 전통음식고을	산업형
	구례군	지리산 산수유 마을	산업형
	보성군	녹차향이 감도는 다향마을	생태형
	해남군	세계로 향하는 땅끝마을	관광형
	장성군	ASSA 휴마을 그린 포리스트	생태형
경 북	경주시	함박산(천연염색) 꽃피는 마을	산업형
	구미시	휴먼 디지털 산업 커뮤니티	문화형